

권태순 장군 동상 제막식

강릉에서 태어나 6·25 전쟁 시 험악한 공을 세우고 조국수호 과정에서 순국한 고(故) 권태순 장군을 추모하는 동상 제막식이 10월 26일 (금) 강릉통일공원에서 열렸다.

강릉시는 국민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국가안보 및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장군의 투철한 군인 정신과 빛나는 전공을 후세에 널리 알리고자 사업비는 국비를 들여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통일안보공원에 높이 5.8m의 권태순 장군 동상을 건립하였다.

권태순 장군은 1922년 2월 5일 강릉에서 태어나 1946년 육군사관학교 제2기로 졸업 입관한 뒤 해방 이후 오대산지역에 무장 침투해 게릴라 활동을 하던 북한군 유격대 섭별을 비롯해 6·25 전쟁 시 보병 8

사단 작전참모로서 조국수호의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 영전 전투에서 성공적 작전수행으로 불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키고 반격해 38선을 돌파, 회전을 점령하고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하는 공을 세웠다.

10연대장으로서는 춘천 내평리에서 양동작전으로 적 연대병력을 섬멸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고 6·25 전쟁의 전환점 황성 전투에서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방어하여 공세를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고 최후까지 용전분투했으나 1951년 2월 12일 장렬히 전사했으며, 현재 국립현충원 장군 1묘역에 묘번40 육군준장 권태순 배위 박순남 합장 안장되어 있다.

〈권영만 이사〉



스즈난 10월26일 강릉통일공원에서 권태순장군 동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故 權重倫 公 獨立有功者表彰

고 권중륜 공 독립유공자 표창

은평·수색 종친회장 권태양씨(權太揚·79, 대전, 추밀공과 33世)의 업적인 權重倫 公은 한학자로서 공주 장기면 등에서 書堂을 운영(당시 4世)하였으며 1919년 3월 14일 공주군 신상면 유구시장에서 500여 명의 군중을 규합해,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일경주제

소 및 헌병대 등을 습격하다가 日警에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이 판명되어, 지난 2008년 8월 15일, 대통령표창이 나와 후손을 찾던 중, 이번에 權太揚회장이 후손임을 인정되어 2012년 12월7일, 대통령 표창장을 전수받게 되었다.

권태영 族長은 경찰공무원으로 모범으로 35여년간 재직,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표창, 근정훈장 등을 수훈했으며, 강순덕(76세)여사 사이에 4남매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편〉



雲谷書院誌

운곡서원지

(지난호에 이어)

그리고 25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와 예조의 좌랑·정랑을 거쳤으나 시세에 밀려 당상관(堂上官)으로 오르지 못하고 외직으로 나가 다섯 고을을 다스렸다. 이는 그 스승 이언적이 명종 2년 정미년(1547)의 양재역서(良才驛驛書) 사건으로 유배되어 6년 뒤에 유배지에서 죽고 바로 이 해에 문과에 급제한 뒤 위함을 무릅쓰고 경주의 안강(安康)에 옥산서원(玉山書院)을 세워 회재를 제창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귀봉은 이처럼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기어코 이 서원을 창건하고 선조 5년 임신년(1572)에는 초당(草堂) 허업(許曄)에게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다음의 4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은 0점에서 10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나는 외향적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다(P 지수).
 ② 나는 긍정적이고, 우울하고 침체된 기분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 나며 스스로 잘 통제한다(P 지수).
 ③ 나는 건강·돈·안전·자유 등 나의 조건에 만족한다(E 지수).
 ④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내 일에 몰두하는 편이며, 자신이 세운 기대치를 달성하고 있다(H 지수).
 ⑤ ①과 ②를 더한 점수에 ③점수의 5배, ④점수의 3배를 더하면 행복지수가 산출되는데, 만점인 100점에 근접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①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쏟을 것, ② 흥미와 취미를 추구할 것, ③ 밀접한 대인관계를 맺을 것, ④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것, ⑤ 현재에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 것, ⑥ 운동하고 휴식할 것, ⑦ 항상 최선을 다 하되 가능한 목표를 가질 것 등 7가지에 힘쓰도록 강조하고 있다.

대개 이 의논이 처음 일어나 통문(通文)이 나온 것은 정조 8년 갑진년(1784) 5월에 경상도 영해(寧海)의 권씨 종중에서였다. 그곳의 권중륜(權重倫) 등 85인이 시조의 고향에 사당을 세우려는 취지의 통문을 경주로 보내왔는데 이 의논은 영해의 후손 권용해(權龍海)가 창도(倡導)하였고 그 아우 용덕(龍德)과 함께 경주 운곡에 와서 살피고 그 터를 보고 가서 통문을 보낸 것이었다. 그 통문에서 이들은 “우리 시조 태사부군(太師府君)의 공렬이 성대하고 덕업이 융숭하여 만세토록 존상(尊尙)할 바이어서 안동에 이미 제향을 받드는 예가 있으니 국가에서 높이 보답하는 전범(典範)과 사림(士林)에서 높이 받드는 도리가 가히 갖추어졌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옆드려 생각건대 동도(東都) 경주의 영기(靈氣)가 모인 곳에 아직도 사당의 제향을 받

드는 의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시조께서 이미 신라의 종친(宗親)이시니 계림(鷄林)은 근본이 되는 땅이고 남중공(南中公)의 부인(夫人) 허씨(許氏)의 묘소가 귀향(貴鄉) 공암(孔巖)에 소재함이 가승(家乘)에 밝게 실려 있으니 이로써 미루건대 귀읍(貴邑) 경주가 고향임이 명백합니다. 하물며 또한 조국(祖國) 신라를 위하여 창(義)하고 도적을 토벌함이 경주에 있었으니 귀향이 역시 훈공을 세우신 곳이니라 후손으로서 이 도읍에 역임한 자는 그 누가 추모하여 흠감지 않은 이가 있겠습니까. 지난날 서울 주동(鑄洞)의 관대운(權大運) 상국(相國)이 이 고을을 지나던 날에는 비를 세우 공훈을 표하는 의의도 있었고 충부 황강(黃江)의 순상(巡相) 권혁(權赫)시호 端簡이 다스릴 때에는 지석(誌石)을 찾은 일이 있으니 두 공의 ‘멀리 거슬러 올라가 존모하는 성’의는 예사로운에서 아득히 벗어 나는 것입니다. 여러 존장(尊長)께서는 이미 그 고을에 계시므로 그 느끼고 사모하는 감회가 더욱 크게 될 것이니 반드시 일을 주관하여 의논을 창도(倡導)하신 다음 마정조 10년 병오년(1786)에 다시 일어난 의논에 따라 시조 태사공을 중존위(中尊位)로 하고 죽림 권산해와 귀봉 권덕린을 배향(配享)하는 추원사(追遠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주의 권씨 종중에서는 안동의 대종중(大宗中)에 통문을 보내 “우리 시조 태사부군은 큰 공훈(功勳)과 도타운 덕(德)이 있어 실세토록 존상(尊尙)할 바이어서 안동에 이미 제향을 받드는 예가 있으니 국가에서 높이 보답하는 전범(典範)과 사림(士林)에서 높이 받드는 도리가 가히 갖추어졌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옆드려 생각건대 동도(東都) 경주의 영기(靈氣)가 모인 곳에 아직도 사당의 제향을 받

받드시 고향인 것입니다. 시험 삼아 족보에 실린 것을 본다면 ‘안동을 지었는데 고려 태조를 맞아들이고 가서 구했다’ 하였으니 경주 또한 반드시 그 당시에 창의하여 도본이 되는 땅이고 남중공(南中公)의 부인(夫人) 허씨(許氏)의 묘소가 귀향(貴鄉) 공암(孔巖)에 소재함이 가승(家乘)에 밝게 실려 있으니 이로써 미루건대 귀읍(貴邑) 경주가 고향임이 명백합니다. 하물며 또한 조국(祖國) 신라를 위하여 창(義)하고 도적을 토벌함이 경주에 있었으니 귀향이 역시 훈공을 세우신 곳이니라 후손으로서 이 도읍에 역임한 자는 그 누가 추모하여 흠감지 않은 이가 있겠습니까. 지난날 서울 주동(鑄洞)의 관대운(權大運) 상국(相國)이 이 고을을 지나던 날에는 비를 세우 공훈을 표하는 의의도 있었고 충부 황강(黃江)의 순상(巡相) 권혁(權赫)시호 端簡이 다스릴 때에는 지석(誌石)을 찾은 일이 있으니 두 공의 ‘멀리 거슬러 올라가 존모하는 성’의는 예사로운에서 아득히 벗어 나는 것입니다. 여러 존장(尊長)께서는 이미 그 고을에 계시므로 그 느끼고 사모하는 감회가 더욱 크게 될 것이니 반드시 일을 주관하여 의논을 창도(倡導)하신 다음 마정조 10년 병오년(1786)에 다시 일어난 의논에 따라 시조 태사공을 중존위(中尊位)로 하고 죽림 권산해와 귀봉 권덕린을 배향(配享)하는 추원사(追遠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두 통문에서는 한결같이 경주 시조 태사공의 고향임을 강조하고 태사공이 그 조국(祖國) 신라를 위해 창(義)하였으며 또 숭봉하는 제전은 다만 득성(得姓)한 관향에서만 베풀고 유독 영범(英範)이 깃드는 곳에서는 제사를 지칭하는 ‘권릉(權陵)’이 있는 연고 등을 강조하여 들고 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발의가 이해 5월에 영해와 경주 종중에서 나옴에 따라 다음달 6월에는 안동 대종

중에서 권정보(權正普) 등 157인과 예천(醴泉)에서 권천오(權天五) 등 95인 및 진보(眞寶)에서 권만창(權萬昌) 등 40인이 연명으로 이를 찬동하는 뜻으로 보낸 통문이 경주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안동 대종중은 그 답통(答通)에서 ‘경주가 우리 시조의 조국(祖國)이 있던 고향이므로 사당을 세워 봉안하는 거행을 하는 것은 심히 성대한 일’이라고 하였으나 다만 태사공이 창의하여 경주에도 가서 싸웠다는 것과 남중공의 배위 허씨의 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우리 시조의 큰 공훈(功勳)과 도타운 덕(德)은 실로 이미 사자에 실려 빛나고 백세(百世)토록 사당의 제향을 받고 있으나 지금 보첩(譜牒)에 실려 있거나 사당의 비석과 묘소의 갈명(碣銘) 등 문자에는 다만 나라를 위해 도적을 토벌하고 능히 병산(峴山)의 승첩을 이워 권도(權道)에 통달해 성(姓)을 받고 이로써 안동의 이름을 승격시켰다는 이가거니와 있고 경주의 전경에는 나라 것과 허씨의 묘소에 관한 것에 이르러 그 개략도 보이지 않으니 어찌 세대가 멀리 단절되고 문헌으로 장합함이 없어 혹시 사실이 있더라도 미처 발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겠습니까.”

이는 실로 의식스럽게 전해오는 것으로 놓아두어야 마땅할 것임이나 다만 옆드려 생각건대 우리 시조께서 신라의 종성(宗姓)이었으니 경주가 그 고향인 것은 진실로 사조암(思祖巖)이라는 이름이 있어 산(山) 이름과 바위 이름이 또한 우연한 것이 아닌지라 바야흐로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되돌아 생각건대 안동부(安東府)는 곧 시조의 묘소와 사당이 의탁한 곳이고 국내에 있는 여러 종성(宗姓)의 분관이 걸린 곳인 만큼 침종(浸宗)의 장덕(長德) 앞에 먼저 일의 재단(裁斷)을 받는 도리를 행하지 않을 수 없는지라 저희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 영해 종중의 통문을 지니고 보내게 하였으니 옆드려 헤아리건대 침종께서는 가부(可否)를 짐작해 해서 지위 흐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우장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행복이란

행복(Happiness)

인간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갖가지 욕구를 가지며, 그것이 충족되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어 있는 상태, 또는 그때에 생기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어떠한 욕구의 만족을 구하고 있는가에 따라 행복의 내용도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다.

감성적 욕구의 만족에서만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쾌락주의자’로 불린다. 이 경우의 행복은 감성적 쾌락을 뜻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피쿠로스(Epicuros, BC 342?-BC271)는 이런 종류의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까닭에 쾌락주의자를 에피쿠리언(Epicurea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에피쿠로스 자신은 반대로 참다운 행복은 어떤 욕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있다고 보았다. 동양에서 회자되는 ‘깨달음의 경지’나 ‘무(無)의 경지’라는 것이 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감성적 욕구의 만족이 아니고, 정신적 안정을 구하는 욕구의 만족이다.

스토아학파(Stoa 學派) 사람들은 도 이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다스리고, 극기 금욕적(克己 禁慾的)으로 사는 데서 행복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스토아학파는 BC 3세

기부터 로마제정 말기에 이르는 고대 후기를 대표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유파이다. 이 학파는 제논(Zenon ho Eleates BC 490?-BC 430?)이 창시한 그리스 철학의 한 파인데, 윤리를 중심 과제로 하고 존엄한 도덕주의와 엄격한 의무의 준수를 주장했다.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를 스토이(Stoic)이라고 하는데, 이는 극기와 또는 금욕주의자라는 뜻이다. 제논이 아테네아고라의 stoa(주랑, 柱廊, 여러 개의 기둥만 나란히 서있고 벽이 없는 복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스토이아파(주랑의 사람들)’라고 불렀다. 스토아파의 특징은 지혜(신과 인간의 일에 대한 지식)의 실천적 성격에 있으며 이 원리에 바탕을 둔 스토아철학은 고대철학 원리에 주체적인 반성의 철학이 되었다.

행복지수(幸福指數, Happiness Index, HPI)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이는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Carol Rothwell)과 인생 상담사 코언(Peter Cohen)이 만들어 2002년 동안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80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상황을 고르게 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

권도훈 씨 54회 사법시험 합격



안동 권태봉씨의 장남 권도훈 씨가 2011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4회 사법시험에 응시해 지난 11월23일 최종합격해 권문의 영광을 안겨주었다. 도훈씨는 엄친 권태봉씨(54)와 자당 김명숙(53)의 장남으로 태

어났으며, 동정공과 34世손으로 두뇌가 명석한 인물이다.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1시, 안동시 풍산읍 계평동 마을에서 권오주 안동중산중친회장의 주관으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격 환영식을 거행했다. 앞으로

오문의 큰 그릇으로 장래가 매우 촉망되고 있다. 〈권혁세 기자〉

현빈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영훈

- 前 국세청 법인세과장·조사2과장
- 前 삼성세무서장
- 안동권씨 대중원 감사
- 북야공파 34世 경북포항

고객의 성공을 돕는 것,

현빈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무실 약도

역삼동 경복아파트 건너
차병원 방향 20m 왼쪽

사무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 봉암빌딩 2층
전 화 : 02)538-2244 팩스 : 02)562-7007